

# 한국에서의 마르크시즘 소개 현황

李 正 醥

(서울大 社會大 教授)

<차례>	
I. 序 言	IV. 197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II. 195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V. 198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III. 196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VI. 結 語

## I. 序 言

한국에서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을 살펴보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마르크시즘으로 보느냐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마르크시즘은 이를 광의로 파한악다면 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 ② 그들의 사상을 개별국의 특수 상황에 적용시켰다고 하는 데니, 스탈린, 트로츠키, 모택동, 티토, 카스트로 등의 사상, 그리고 ③ 마르크스를 재해석, 비판, 발전 혹은 변모시킨 東歐의 R.룩셈부르그, G.루카치, K.코르쉬, O.랑게, L.콜라코브스키, A.샤프, 프랑스의 H.르페브르, L.알뛰제, L.골드만, J.P.사르뜨르, R.가로디, M.퐁티, N.폴란자, 이태리의 A.그람치, G.D.볼프, L.콜레티, 독일의 M.호르크하이머, T.W.아도르노, J.하버마스, 英美的 P.바란, P.스위치, M.도브, H.마르쿠제, E.프롬, B.무어 등의 사상을 포함하는 실로 다기하고 방대한 이념체계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 중 마르크스의 사상을 직접 소개하고 비판한 글들로 어떠한 것이 한국에 나와 있는가를 조사해 보고, 이와 같은 마르크시즘 비판학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를 통해 각각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고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글들을 찾는데 있어 한국에서 발간된 전 출판물이 아니라, 대학인들이 많이 읽는다고 생각되는 주요 월간지, 학회지, 단행본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열거하면 월간지로서 『思想界』, 『世代』, 『월간中央』, 『新東亞』, 『월간朝鮮』이 있고, 학회지로서는 『韓國政治學會報』(韓國政治學會誌), 『國際政治論叢』(國際政治學會誌),

『經濟學研究』(韓國經濟學會誌), 『韓國社會學』(韓國社會學會誌), 『哲學研究』(韓國哲學研究會誌)가 있다. 그리고 단행본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서적을 중심으로 하였다.

## II. 195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1950년대는 美·蘇간의 냉전, 北韓의 남침,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매우 높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있어 식자들의 대부분은 마르크시즘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를 꺼렸기 때문에 이를 다른 글의 수도 매우 적다.

1950년대에 나온 몇 편 안되는 마르크시즘에 관한 글은 대부분 월간지 思想界에 게재되어 있다. 당시 학회지는 그 발간이 여의치 못했고 따라서 이 분야를 다룬 학회지의 학술논문은 한 편도 없다. 마르크시즘을 취급한 단행본도 거의 없다. 그러한 단행본이 있다고 해야 思想檢事로 명성을 날리던 吳制道의 『共產主義 A.B.C.』(서울: 국민사상지도원, 1952)와 그 亞流의 책들이다. 이로 보아 1950년대의 마르크시즘 비판은 『思想界』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재준, 「공산주의론」(1953년 8월)
- ② 매튜우 스카트, 「맑스주의의 심리학」(1954년 8월)
- ③ 양호민, 「맑스와 맑스주의」(1956년 11월)
- ④ 김창순, 「공산주의의 운명」(1956년 11월)
- ⑤ 성창환, 「사회주의학파」(1957년 4월)
- ⑥ R. 아론, 「공산주의와 지식인」(1957년 4월)
- ⑦ 신상초, 「민족주의의 신차원」(1957년 5월)
- ⑧ L.O. 켈쓰, 「칼·맑스론」(1957년 10월)
- ⑨ 한태연, 「공산주의적 질서의 반민주성」(1958년 11월)

이상 아홉 편의 글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글들은 대부분 마르크시즘의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고 비판을 앞세우고 있다. 둘째로, 마르크시즘과 실제적 공산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이를 구분하더라도 後者の 사상적 기초가 前者에 있으므로 그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셋째로 이 글들은 대체로 공산주의체제를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파악하고 마르크시즘의 실천적 귀결이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점에서 마르크시즘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예외를 이루는 글이 있으니 그것은 양호민 교수의 「맑스와 맑스주의」이다. 양교수는 마르크스가 서구 三大문화권의 대표적 사상, 즉 독일의 헤겔철학, 불란서의 사회혁명사상, 영국의 경제학을 학습·통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마르크시즘의 성립과정을 마르크시즘 비판에 앞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양교수의 글은 마르크시즘의 성립 과정에 있어 Young Marx와 Old Marx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Old Marx의 『資本論』이 Young Marx가 파악한 “人間의 自己疎外”的 개념에다 구체적인 역사적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R. 가로디의 해석을 인용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도 나타내고 있다.

양교수는, 마르크스가 19세기, 특히 영국의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지위라는 특수현상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현상으로 인식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들과 추호라도 상이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仇敵視하고 그 결과 그들의 정치적 실천이 독재주의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이 아무리 논파되어도 그것이 매장되지 않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그것이 떠받들고 있는 중심 사상이 종교적 정열에까지 도달한 고도의 휴머니즘으로 일관되어 있는 까닭이라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극복에 대해서도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규탄하는 사회적 부정을 말살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 III. 196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주지하다시피 4·19 이후 약 일 년간 韓國의 정치적·知的 분위기는 유례 없이 자유로웠다. 민주사회주의적인 정당이 출현했고 대학생들 간에도 그간 금기로 되어 있던 진보적인 사상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진보적 성향은 반공의식에 투철했던 기성세대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러한 충격은 마르크시즘에 대한 보다 많은 글로 나타났다. 1960년대의

이러한 글들은 월간지 중에서는 계속 『思想界』에 압도적으로 많이 게재되어 있고 『新東亞』, 『中央』, 『世代』, 『政經研究』의 월간지에서는 좀처럼 찾기가 힘들다. 또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에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학술논문이 단 한 편도 없었으나 1960년대에는 학회지 『哲學研究』가 이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마르크시즘을 취급한 단행본도 수십 권이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思想界社, 內外文化社, 韓國反共聯盟, 國際勝共聯合會 등 반공 색채가 뚜렷한 곳에서 발간되었다. 이들 중 주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월간지

#### 1) 『思想界』

- ① 로스토우, 「비공산당선언」(1960년 1월, 2월, 3월 연재)
- ② 양호민, 「사회주의 이론의 세대적 고찰—맑스주의, 수정주의, 휴비  
안주의, 민주사회주의—」(1960년 2월)
- ③ 김봉구, 「맑스주의 교리와 실존적 휴머니즘—싸르뜨르의 유물론과  
혁명을 중심으로—」(1961년 1월)
- ④ 신상초, 「세계혁명의 재인식」(1961년 4월)
- ⑤ 임원택, 「유물사관의 문제점」(1961년 4월)
- ⑥ 이창렬, 「잉여가치론」(1961년 5월)
- ⑦ 윤하준, 「계급투쟁론」(1961년 6월)
- ⑧ 조가경, 「맑시스트의 실존주의관」(1961년 6월)
- ⑨ 선우학원,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 비판」(1961년 7월)
- ⑩ 조요한, 「맑시즘의 예술관과 그 비판」(1961년 9월)
- ⑪ 최문환, 「맑스주의의 민족이론 비판」(1961년 10월)
- ⑫ 슈바르즈, 「맑스로부터 후루시초프까지 4막극」(1962년 3월)
- ⑬ 특집 : 맑시즘과 수정주의(1963년 1월)

양호민, 「수정주의란 무엇인가?」

윤하준, 「비인간화와 비스탈린화」

김영국, 「전향한 동독철학자 블로흐」

조정자, 「티토는 수정주의의 시조인가?」

신일철, 「사회적 실존과 루카치」

E.싸르키안즈, 「맑시즘과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⑭ 신일철, 「맑스의 史眼을 벗어라」(1964년 9월)

⑮ 시드니후크, 「『자본론』 100주년의 맑스주의」(1967년 2월, 5월)

⑯ 임종철, 「맑스『자본론』에 대한 새로운 비판」(1968년 6월)

### 2) 『新東亞』

① 특집 :『자본론』 100년과 「마르크스」주의(1967년 9월)

김용갑, 「『자본론』이후의 공산주의」

신상초, 「마르크스와 『자본론』」

김정태, 「『자본론』의 내용」

### 3) 『政經研究』

① 최광석, 「공산주의의 이론적 쟁점」(1967년 4월)

## 2. 학술지

### 『哲學研究』

① 최일운, 「유물변증법은 케빈이다」(제 5집, 1967년 10월)

② 이영춘,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비판」(제 7집, 1968년 12월)

③ 최일운, 「Marx의 노동가치설 비판(一)」(제 8집, 1969년 5월)

④ 최일운, 「Marx의 노동가치설 비판(二)」(제 8집, 1969년 11월)

### 3. 주요 단행본

① 윤원구, 『맑쓰主義의 批判的 克服』(서울 : 신태양사, 1961)

② 홍지영, 『共產主義 理論 批判』(서울 : 태서문화사, 1961)

③ A.M.스콧著, 정태섭譯, 『共產主義』(서울 : 사상계사, 1961)

④ 시드니후크著, 양호민譯, 『맑스와 맑스主義者들』(서울 : 사상계사, 1962)

⑤ 내외문제연구소, 『共產主義 問答集 : 共產主義란 이런 것』(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63)

⑥ 내외문제연구소編, 『共產主義의 白書 :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64)

⑦ 내외문제연구소編, 『變質되는 共產主義 : 허물어지는 맑스經濟理論』  
(서울 : 내외문제연구소, 1967)

- ⑧ 양호민, 『共產主義 理論과 現實 批判全書 : 제 1 권, 맙스·레에닌主義 (理論批判篇)』(서울 : 내외문화사, 1963)
- ⑨ 보핸스키, 니이마이어 共編, 韓國反共聯盟調查研究室譯, 『共產主義 批判全書 1』(서울 : 한국반공연맹, 1964)
- ⑩ 국제승공연합회編, 『세共產主義 批判』(서울 : 成和社, 1968)
- ⑪ 전두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崩壞 : 共產主義의 總括的 批判』(서울 : 新文化社, 1968)

이상 열거한 마르크시즘에 관한 글들이 1950년대의 마르크시즘 비판문들과 다른 점은 이 글들이 마르크시즘의 내용을 소개하고 난 연후에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思想界』가 1961년 4월부터 동년 10월까지 게재한 신상초, 임원택, 이창렬, 윤하준, 조가경, 선우학원, 조요한, 최문환의 글들은 마르크시즘의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新東亞』의 “『자본론』 100년과 「마르크스」주의” 특집에서도 김용갑은 『자본론』 이후의 공산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해, 신상초는 마르크스의 생애와 그의 저작에 대해, 김정태는 『자본론』의 내용에 대해 충실히 소개를 하고 있다. 특히 김정태는 학문에 관한 타부가 우리 자신의 시야를 좁히는 것이 됨을 강조하고 『자본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주장하면서 『자본론』 1, 2, 3권의 주요내용과 총목차를 소개하고 있다.

1960년대의 월간지에 실린 마르크시즘에 관한 글들이 마르크시즘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글들이 마르크시즘비판을 소홀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원택 교수는 유물사관이 진리의 반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선우학원 교수도 유물사관으로는 인간행동의 동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창렬 교수는 잉여가치론에 있어 추상적인 노동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아울러 잉여가치론이 기업가의 창의라든가 자본가의 위험 부담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윤하준 교수는 선진제국이 계급투쟁을 이미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시즘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외의 월간지 필자들의 마르크시즘 비판도 아주 단호하다. 그 대표적 예로 다음과 같은 임종철 교수의 『자본론』 비판을 들 수 있다.

맑스 경제이론의 주요기초이며 자본론의 중심적 관념인 가치는 그것이

인간적 평등의 경제적인 실증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달걀 한 알이 어째서 茶 한잔보다도 비싼가 하는 것으로 타락, 변질해 버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치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척도인 추상적인 노동에도 문제가 있다. 고용된 노동량과 노동시간을 일정하다고 일단 가정하면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플로우가 기술진보, 생산성 상승등으로 급격히 증대되든 혹은 자본스토크의 마손으로 감소되든간에 가치로 표시한 산출고는 일정하다는 억지를 우리는 범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상계』, 1968년 6월 p. 198)

1960년대 월간지에서의 마르크시즘 비판을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로스토우의 「非共產黨宣言」을 빼 놓을 수 없다. 로스토우의 이론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발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한 사회의 제결정이 단순히 재산 소유자의 함수라는 마르크스의 가정을 서구에서의 복지국가 출현이라는 예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둘째로, 그는 전쟁이 경제적 이익만에 의한다라는 마르크스주의의 분석도 각종의 전쟁이 무엇에 기인하는가에 대한 분석 앞에서는 여지없이 왜곡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민족주의 및 그에 부수되는 모든 것도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전통사회와 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성숙자본주의의 식민지 의존설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성숙자본주의가 저개발 지역에 대하여 충분히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술지 『哲學研究』에 게재된 몇 편 안되는 마르크스 비판 논문은 월간지의 글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마르크스 이론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일운 교수는 「유물변증법은 궤변이다」라는 논문에서 유물변증법의 세 가지 법칙이 모두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는 사물의 본질을 모순으로 본 「대립물의 통일법칙」은 모순. 대립, 반대, 차별 등의 주관적 表象을 혼동하여 실재화한 인식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립물의 통일법칙」은 生과 死의 관계를 모순으로 파악하나 生과 死의 관계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모순도 대립도 아니라는 것이다. 생명있는 것이 사멸하는 것은 生의 본질적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물변증법론자들이 이를 모순으로 파악하는 것은 주로 양자간의 表象이 한편에 있어서는 價值的인 것, 즉 유타구의 대상인데 반하여 다른 편에서는 反價值的인 것, 즉 기피의 대상이라는

인식주관의 가치감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최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그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도 인식의 지향성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인 표상을 實在化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꽃봉오리가 꽃이 되고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自己否定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自己肯定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質量互變의 법칙」은 因果律을 그때 그때 적당히 질과 양의 관계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質量互變의 法則」은 산소는 O이지만 오존은 O<sub>3</sub>로서 O의 양적 증가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나, O와 O<sub>3</sub>의 질적 차이는 그것의 양을 단순히 증감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의 화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양적 증감과 화합은 다르나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유물변증법론자들이 表象의 혼동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체의 사물이 유동한다고 보는 변증법론자도 「일체의 사물이 유동한다」는 명제 자체는 不動의 位置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 명제마저 변증법적으로 부정되어 「일체의 사물은 유동하지 않는다」의 명제로 이행된다면 이는 변증법 자체의 부정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A라는同一原理를 부정하여서는 A·Ā라는 변증법의 부정원리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교수의 유물변증법 비판이 변증법의 비판에 치중되어 있는 데 반해 이영춘 교수의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의 비판」은 유물론과 유물사관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유물론이 물질을 만유의 근원으로 보고 있으나 정신과 물질은 상호 어느 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고 양자는 평행적인 관계를 이루며 상호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知的인 활동이 정신의 자발적인 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두뇌에 의한 외적인 것의 반영으로 보는 유물론의 模寫說도 아울러 거부하고 있다. 그 다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계급투쟁론에 대해서는 계급투쟁이 페연적이 아니고 계급간의 상호 타협과 부조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는 사회가 진보하면 할수록 많은 계급이 생겨서 여러 계급으로 분화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마르크스의 二分論의 계급분류도 비판하고 있다.

그 다음 최교수의 「Marx의 勞動價值說의 批判」은 노동가치설도 유물변증법과 마찬가지로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잉여노동에서 나오는 잉

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노동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필요노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필요노동을 노동자가 1일의 생활을 위하여 그의 생활의 제물자를 얻을 수 있는 노동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이를 가정적으로만 취급하여 노동자가 一勞動日에 있어 10시간 노동한다고 하고 필요노동이 5시간이라면 잉여노동은 5시간이 될 것이라는식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地代를 잉여가치의 일부라고 보았는데 地代가 그 토지의 豊度와 位置와 自然的 條件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도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최교수는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교수는 마르크스가 不變資本이나 流通過程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前提해 놓고서도 그의 이론의 전개과정에서는 기계의 채용에서도, 또 유통과정에서도 이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수시로 인정하는 모순을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마르크시즘 비판 서적 역시 유물론, 모사설, 유물변증법, 사적유물론, 계급투쟁론,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이윤율저하경향의 법칙과 빙곤증대의 법칙 등을 앞서 살펴 본 최일운 교수의 논조와 비슷한 양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 비판의 내용도 그 요점에 있어서 월간지와 학술지의 마르크시즘에 나타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반복해서 소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1950년대에 나온 오체도의『共產主義 A.B.C.』와 비슷한 책으로 “공산주의는 과학적인가”라든가 “어떠한 사람들이 一國家內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는가”등의 문답식 공산주의 비판서이다. 흥지영의『공산주의이론 비판』이나 내외문제연구소편의『공산주의 문답집 : 공산주의란 이런 것』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두번째는 번역서이다. 구미의, 특히 미국의 반공적 지성인들의 마르크시즘 및 공산주의 비판서나 논문을 번역한 책들로 스콧트, 후크, 보핸스키, 니아마이어, 그리고 내외문제연구소편의『공산주의 백서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변질되는 공산주의 : 허물어지는 맑스경제이론』이 이에 속한다.『공산주의 백서』는 미국 하원의 반미활동조사위원회가 1959년 12월에 공표한 *Facts on Communism*(전 6권)의 제 1권을 번역한 것이고,『변질되는 공산주의』는 USIA가 발간하는 *Problems of Communism*에 실린 공산권 경제에 관한 논문들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이들 번역서들은 첫번째 부류의 마르크시즘 비판

서보다는 수준이 높으나 그 반공 선전적 입장에서는 첫번째 부류의 단행본과 다를 바가 없다.

세번째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비판서로 양호민 교수의『맑스·레에닌주의』가 이에 속한다. 양교수의 저서는 공산주의 비판 전서의 제1권으로 출간되었는데, 동전서의 편집인들은 여태까지의 반공이 “『덮어놓고』式의 感情反共, 高喊反共, 주먹反共”이었다고 그들의『全書』발간사에서 지적하고 이를 지양하는 것이 동전서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양교수의 저서는 이러한 발간사에 부합되는 업적으로 마르크스 원전과 이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설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소개, 비판하고 있다. 본서에 있어서의 양교수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앞서 소개한 그의 논문의 그것과 같다.

윤원구와 전두열의 저서는 첫번째 부류와 세번째 부류의 중간에 속하나 그 비판의 입장에 있어서는 첫번째에 가깝다. 두 책 모두 마르크스 원전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으나 그 반공 선전적 성격은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를 단행본의 저자들이 마르크시즘과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구별하는 사조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IV. 1970년대의 마르시즘 소개현황

1970년대는 한국 경제가 공업화되는 연대이지만 이를 위해 우리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정치·사회·문화적 희생이 매우 커던 시기였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공업화와 정치적 경직화는 급진적 진보주의가 자랄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되었고, 4·19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 성향은 이론 기반으로 더욱 성숙되어 갔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는 마르쿠체, 아도르노, 하버마스 등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설이나 남미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종속이론이 청년 학생들 간에 많이 읽히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설이나 종속이론이 마르크시즘 그 자체는 아니지만 두 이론이 자본주의체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시즘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마르크시즘이 이들을 통해서 뒷문으로 소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확증은 없지만 1970년대 말에는 청년 학생들 간에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르크스에 대한 관심의 지속과 고조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비판론은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1970년대의 특성이다. 또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50년대와 60년대에는 교수와 평론가로 당대에 명성을 날리던 인사들이 마르크시즘 비판에 앞장 섰었으나, 이와 같은 현상은 1970년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70년대에 나온 몇 편 안되는 마르크시즘 관계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월간지

#### 1) 『新東亞』

- ① 김종호, 「마르크시즘의 변모와 분열」(1974년 4월)
- ② 양호민, 「마르크스주의와 현대 사회주의」(1978년 5월)

#### 2) 『中央』

- ① 주섭일, 「「마르크스」철학은 죽었다」(1977년 9월)
- ② 노명식, 「「마르크스」이론을 어떻게 수정할까」(1977년 11월)

#### 3) 『政經研究』

- ① 손봉호, 「기독교와 공산주의」(1977년 4월)
- ② 홍지영, 「신마르크스주의 극복론」(1977년 6월)
- ③ 정진, 「루소와 마르크스」(1977년 10월)
- ④ 김홍명, 「루소와 마르크스에 있어서 객관화 문제」(1977년 10월)
- ⑤ 채수한, 「마르크스에서 호로비츠까지」(1977년 12월)

### 2. 학회지

#### 『哲學研究』

- ① 한명수, 「변증법적 유물사관—그 발전과 비판」(제22집, 1976년 5월)

### 3. 주요 단행본

- ① A.G.마이어著, 양호민譯, 『맑스主義論』(서울 : 을유문화사, 1971)
- ② 小泉信三著, 유근일譯, 『마르크스 死後 百年』(서울 : 삼성문고, 1974)
- ③ 自由學院編, 『맑스레 닌主義 批判 講座』 I-VI, (서울 : 자유학원, 1975)
- ④ 극동문제연구소編, 『共產主義 批判 譯書』 1-6, (서울 : 극동문제연구

소, 1976~77)

- ⑤ D.M.라이트著, 권익환譯, 『마르크스主義批判』(서울 : 을유문화사, 1972)
- ⑥ 북한연구소, 『마르크스의生涯와思想』(서울 : 북한연구소, 1977)

우선 이상 소개한 마르크시즘 관계문헌에 두 가지 종류의 문헌이 빠져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는, 그 대부분이 1970년대에 창간된 공산주의 연구 저널인 『共產主義問題研究』, 『統一政策』, 『北韓學報』, 『共產圈研究』, 『自由아카데미論叢』, 『北韓』 등에 실린 마르크시즘 비판 논문이다. 이곳에 실린 논문의 편수가 몇 개 안되고 그 내용도 상기 문헌과 별다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신일철 교수가 소개한 논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둘째는 마르크시즘을 뒷문으로 소개했다고 볼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와 종속이론에 관한 글들이다. 이들 두 학설을 소개 혹은 비판하는 글들이 1970년대의 월간지와 학술지에 나오고 있으나, 마르크시즘을 간접적으로 소개한다고 볼 수 있는 글들은 프랑크푸르트학파와 종속학파 외에도 序言에서 지적한 바 있는 수 많은 좌파 사상가들의 소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월간지에 발표된 몇 편 안되는 마르크스 관계 글의 특성은 마르크시즘의 변모 과정이나 마르크시즘과 다른 사상과의 관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호, 양호민 교수의 글은 전자에 관한 글이고 손봉호, 정진, 김홍명, 채수한 교수의 글은 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종호 교수는 마르크시즘의 변모 과정을 ① 자본주의 비판으로 탄생한 마르크시즘, ② 마르크시즘의 운동과 이데올로기가 러시아에서 권력과 결부된 이후의 마르크시즘, ③ 그것이 다시 東歐諸國과 中國에서 권력과 결부된 이후의 마르크시즘, 그리고 ④ 「現實」의 마르크시즘(공산제국의 마르크시즘의 실제를 가리킴)과 「現實」의 자본주의를 공히 비판하고 있는 오늘날의 마르크시즘의 四期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양호민 교수의 논문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하고 이와의 관련 하에서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오늘날의 서구 사회주의, 그리고 제3세계 사회주의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손봉호 교수의 글은 기독교와 공산주의(혹은 마르크스주의)의 類似性과

\* 申一澈, “공산권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공산권연구협회편, 『공산권연구현황』(서울 : 법문사, 1981) 제 2 장 pp. 24-37.

相異性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두 사상은 모두 현재의 인간이 소외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는 점에서 같으나, 이의 극복이 기독교는 神의 계시를 통한 구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두 사상간의 상이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진 교수는 룸소와 마르크스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룸소주의가 역사의 완성이支配의 止揚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명제의 형성에 헤겔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명 교수는 오늘날 서구의 행위이론의 물가치성을 비판하면서 룸소와 마르크스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수한 교수는 마르크스, 만하임, 아이젤만, 존슨, 호로비츠의 이데올로기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외에 주섭일의 글은 프랑스의 68년 학생혁명 세대에 속하는 레 그뤼크만, 베르나르 레비, 장 베수아, 필립 네모, 귀 라르도르, 크리스천 장베 등이 표방하고 나선 反마르크스주의적인 「新哲學」의 사조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흥지영의 글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독교 접근에 경종을 울리면서 청년 학생들이 많이 읽고 있는 E.H.카아, S.후크, H.마르쿠제, A.마이어, P.바란, 스위지, 모도프 등의 저서들이 계급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후크나 마이어 같은 학자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96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학회지에서의 마르크스 비판도 1970년대에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나 종속이론을 다룬 논문들이 더러 있기는 하나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논문은 한명수 교수의 「변증법적 유물사관」뿐이다. 한교수는 이 논문에서 마르크스 뿐만 아니라,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이론도 고찰하면서 유물사관에 내재한 “역사적 필연성”的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에 도달하기 전에 실천적 인간주의자였는데 역사가 필연적 법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은 초기 마르크스의 실천적 인간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예언 중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서의 비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다.

1970년대에 나온 단행본들은 1960년대의 단행본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反마르크스주의적 특성이 뚜렷한 책들이다. 자유학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소와 같은 반공기관에서 나온 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이어, 小泉, 라이

트 등도 평이하게 마르크시즘의 非科學性과 形而上學的 요소를 비판하고 있다.

## V. 1980년대의 마르크시즘 소개현황

앞서 우리는 1970년대 말에 청년 학생들의 마르크시즘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관심은 그것의 구조적 토대가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보기에 따라서는 오늘날 그 토대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풍미하던 자유주의 사회과학의 무력성이 드러난 오늘날의 한국에 있어 마르크스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시즘의 도전에 대해 한국의 대학지성인들은 1950년대에는 이를 악마시하였고, 1960년대에는 부정적 비판을 자신있게 가했고, 19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침묵적인 태도를 취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1980년대에는 제5공화국 정부의 禁書解禁 조치에 힘입어 1970년대의 침묵적인 태도는 불식되고 있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취급하는 글과 단행본은 과거에 비한다면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월간지

#### 1) 『新東亞』

① 특집 : 마르크스는 죽었는가(1982년 4월)

② 임원택, 「마르크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홍명, 「『칼 마르크스』는 누구인가」

박현채, 「『자본론』에는 무엇이 쓰여 있나」

정윤형, 「마르크스 경제학과 근대 경제학」

②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아담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의 후예들』(1983년 1월 신동아 별책부록)

③ 특집 : 마르크스를 넘어서(1983년 3월)

변형운, 「현대 경제학의 주류와 비주류」

김윤환, 「마르크스와 현대 경제학」

이상구, 「마르크스와 현대 경제학」

정운찬, 「[케인즈]와 [케인즈혁명]」

## 2) 『政經文化』

① 특집 :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극복(1981년 2월)

이명주, 「20세기가 내린 선언」

이광주, 「비교와 정신풍토」

박동서, 「청년기의 이념적 고민」

김종호,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

최재희, 「마르크스 所說·斷論」

김민채, 「마르크스주의에의 질문」

심윤종, 「마르크스 극복의 제이론」

이명영, 「理路整然한 새 바람을」

백 철, 「인류사상 모순적인 삽화」

송 복, 「一元論의 역사 아이러니」

조연현, 「공산주의 예술관 비판」

이용필, 「그 이론의 비판을 위하여」

金重緯, 「마르크스 3題」

## 3) 『月刊 朝鮮』

① 특집 1: 마르크시즘의 현재(1983년 3월)

양호민, 「마르크스의 기본사상과 현대」

전득주, 「서구공산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

김학준, 「마르크스 사상의 소련적 전개」

김호진,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안병영, 「마르크시즘과 현대 공산주의」

## 2. 주요단행본

① C.W. 밀즈著, 김홍명譯, 『마르크스主義者들』(서울 : 한길사, 1982)

② 칼 포퍼著, 이명현譯, 『열린사회와 그 敵들Ⅱ: 헤겔과 마르크스』(서울 : 민음사, 1982)

③ 데이비드 맥렌던著, 신오현譯, 『칼 마르크스의 思想』(서울 : 민음사, 1982)

- ④ 로버트 터커著, 김학준·한명화共譯, 『칼마르크스의 哲學과 神話』(서울: 한길사, 1982)
- ⑤ 이사야 벌린著, 신복룡譯, 『칼 마르크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서울: 평민사, 1982)
- ⑥ 레이몽 아롱著, 이택희譯,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자들』(서울: 한벗, 1982)
- ⑦ 백종덕, 『맑스주의 分析』(서울: 대학공론사, 1981)
- ⑧ 김영학, 『마르스크·레닌主義 白書: 理念·運動·體制原理 解剖』(서울: 明成出版社, 1982)
- ⑨ 이용필 編著, 『共產主義 理論 批判』(서울: 大旺社, 1980)
- ⑩ 이왕재, 조태훈 共著, 『共產主義 理論과 實際 批判』(서울: 창문각, 1982)
- ⑪ 김태창, 『공산주의의 基本理論과 그 批判』(서울: 동아학습사, 1981)
- ⑫ 미카엘 알러著, 이용필譯, 『共產主義 이데올로기 批判』(서울: 법문사, 1982)
- ⑬ 이무웅, 『공산주의 理論과 現實』(서울: 大旺社, 1981)
- ⑭ 이상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제문제』(서울: 법우사, 1982)
- ⑮ 안병영, 『現代共產主義 研究』(서울: 한길사, 1982)
- ⑯ 한국정신문화연구원編, 『共產主義—그理論과展開』(서울: 고려원, 1982)
- ⑰ 멜빈 레이더著, 이용필譯, 『마르크스思想의 構造: 理論的 批判』(서울: 교육과학사, 1983)
- ⑱ 셸로모 아비네리著, 李洪九譯, 『칼 마르크스의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서울: 까치, 1983)

19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 지성인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의식 변화는 1980년대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소설가 이병주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反共이 직업으로 될 수가 있고,勳章으로 통하는 공적일 수도 있는 나라에서 마르크스主義를 비판한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보단 勇氣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反마르크스主義者 아닌 사람은 용납될 수 없는 사회에

서 세삼스럽게 反마르크스理論을 펼려면 그 내용에 獨創적이고 결정적인發見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지 못할 때 大勢에 편승한 데 마고그, 附和雷同하여 護身을 피하는 小人輩의 잡설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反마르크스論을 했다간 知識人으로서의 品位를 상하기가 고작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그런 사정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難點이 있다. 마르크스主義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禁書取扱을 받고 있어 마르크스 理論이 大衆化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이다. 一般은 마르크스 理論을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그런 만큼 이에 추종할 생각은 전연 없으면서도 마르크스주의를 무슨 대단한 것처럼 幻覺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思想이 提示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만 높다면 그건 장마당에서 떠들어대는 약장수의 웅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鬪牛士는 갈채를 받지만 푸줏간의 주인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 나라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반대하는 理論을 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푸줏간의 주인이 매달아 놓은 쇠고기를 다루는 노릇처럼 되기가 십상팔구이다. (정경문화, 1981년 2월, p. 106)

정경문화 1981년 2월호 특집의 필진들은 그들이 기껏해야 “푸줏간 주인” 밖에 안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비판문을 쓰고 있다. 이병주는 마르크스주의가 19세기적으로만 의미가 있지 오늘날에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선고를 내리고 있고, 이광주 교수도 마르크시즘이 秘教的 마술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동서 교수는 마르크시즘의 극복방법으로 「發展學」을 주장하고 있고, 김종호 교수는 마르크스 사관의 모순성과 마르크스주의적 해방운동의 비극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재희 교수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의 모순을, 김민채 교수는 마르크시즘의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심윤종 교수는 마르크스를 비판한 변행, 렌너, 다렌도르프 등의 이론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필자들도 각자 그들의 전공분야의 관심영역에서 이상과 대동소이한 비판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르크시즘 비판 경향은 이데올로기 禁書 기준이 완화된 1982년 3월 이후 현격한 변화를 보여 마르크시즘과의 대결에 앞서 이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글과 단행본들도 나오고 있다. 1982년 4월의

신동아 특집과 1983년 1월 신동아의 별책부록은 이러한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1982년 4월 특집에서 임원택 교수는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마르크스主義가 갖는 하나의 커다란 호소력이었던 社會主義는 완전히 호소력을 상실하였고 그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의 強烈性과 有毒性도 무산되게 되었으므로 마르크스주의를 여타 과학과 꼭 같은 「科學」으로 취급해야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명 교수는 마르크스의 주요 저서의 내용을 인식론적 전개의 제 1 단계(Young Marx에 해당)와 제 2 단계(Old Marx)에 해당)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마르크스 사상이 혀위로 증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욱 풍부하고 인간적인 것의 원류로서 지양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논술하고 있다. 박현체 교수는 『자본론』의 내용을 상품분석, 노동력과 노동 잉여가치, 궁핍화의 원리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정윤형 교수는 마르크스 경제학과 근대경제학의 기본 성격과 발전과정을 비교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백승균 교수는 마르크시즘의 네오 마르크시즘으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아마도 마르크시즘을 알기 위해서는 마르크시스트의 마르크스해설을 읽는 것이 正道라는 입장에서 스위지, 아담 샤프, 루카치, 루이 알튀제, 모리스 도브 등과 같은 학자들의 저서를 참고문헌으로 열거하고 있기도 하다. 1983년 1월 신동아의 별책부록도 마르크스를 비롯한 마르크시스트의 주요 저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 1983년 3월의 신동아 특집물은 死後 100년이 된 마르크스와 生後 100년의 슬프터와 케인즈의 이론을 비교하고 있다. 1983년 3월 월간조선의 특집물은 마르크스의 기본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그것이 서구 공산주의의 변천과정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레닌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고 소련 정치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종속이론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禁書였다가 폴린 이데올로기 서적들에 의해 이루지고 있다. 이사야 벌린의 『칼 마르크스』는 그의 생애와 사상을 19세기 유럽 지성사의 맥락에서 기술하고 있다. 벌린은 자유주의자로서 그의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저작에서 마르크스 사상의 근본 모티프를 비판한 바도 있으나 이 저서에서는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을 깊은 이해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번역판은 한동안 국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너무 잘 팔려 책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데이비드 맥렐런의 『칼 마르크스의 사상』은 우선 마르크스가 1837년에 「부친에게 보낸 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최후의 저술인 1882년의 「『공산당 선언』의 러시아어 제 2판 서문」에 이르기까지의 45년간에 걸친 방대한 저술의 내용을 8개 장으로 나누어 해설하고 있다. 그 다음 그는 마르크스 사상을 ① 소외, ② 史的 唯物論, ③ 노동, ④ 계급, ⑤ 黨, ⑥ 국가, ⑦ 혁명, ⑧ 미래 공산사회로 나누어 그 자신의 해설을 붙이고 각 주제에 관계되는 원전의 발췌문을 싣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의 전사상을 필자의 입장을 가능한 한 게재시키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C. 라이트 밀즈의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책의 전 분량의 4분의 3정도를 마르크스와 체 게바라에 이르기까지의 마르크시스트들의 주요 저술의 발췌문을 실는 데 할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밀즈의 이 저서는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적 오류를 잘 지적해 주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해금된 서적 중에는 칼 포퍼와 로버트 터키의 저서와 같이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취급한 서적도 있다. 포퍼는 마르크스가 역사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터키는 그의 사상에 신화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각각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비판서로는 최고봉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저서가 禁書로 묶여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 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1980년에 출간된 이들 외의 마르크스관에 서적들도 대부분 마르크스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러한 서적들보다는 마르크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소개한 서적들이 대학가에서는 더욱 널리 읽히고 있는 듯하다.

## VI. 結 語

이상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르크시즘 소개 상황이 1950년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결어에 대신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마르크시즘의 극복이 해방 이후 우리의 과제중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제분야의 학회지에는 이를 취급한 논문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앞서 인용한 한 소설가가 기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연유되었다면 마르크스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밀듯이 몰려 오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이를 의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마르크시즘을 비판하고 있는 학자들이 대개 정치학자들인데 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마르크시즘 비판에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마르크스의 주저가 『자본론』이고 보면 이 저서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가장 잘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이다.